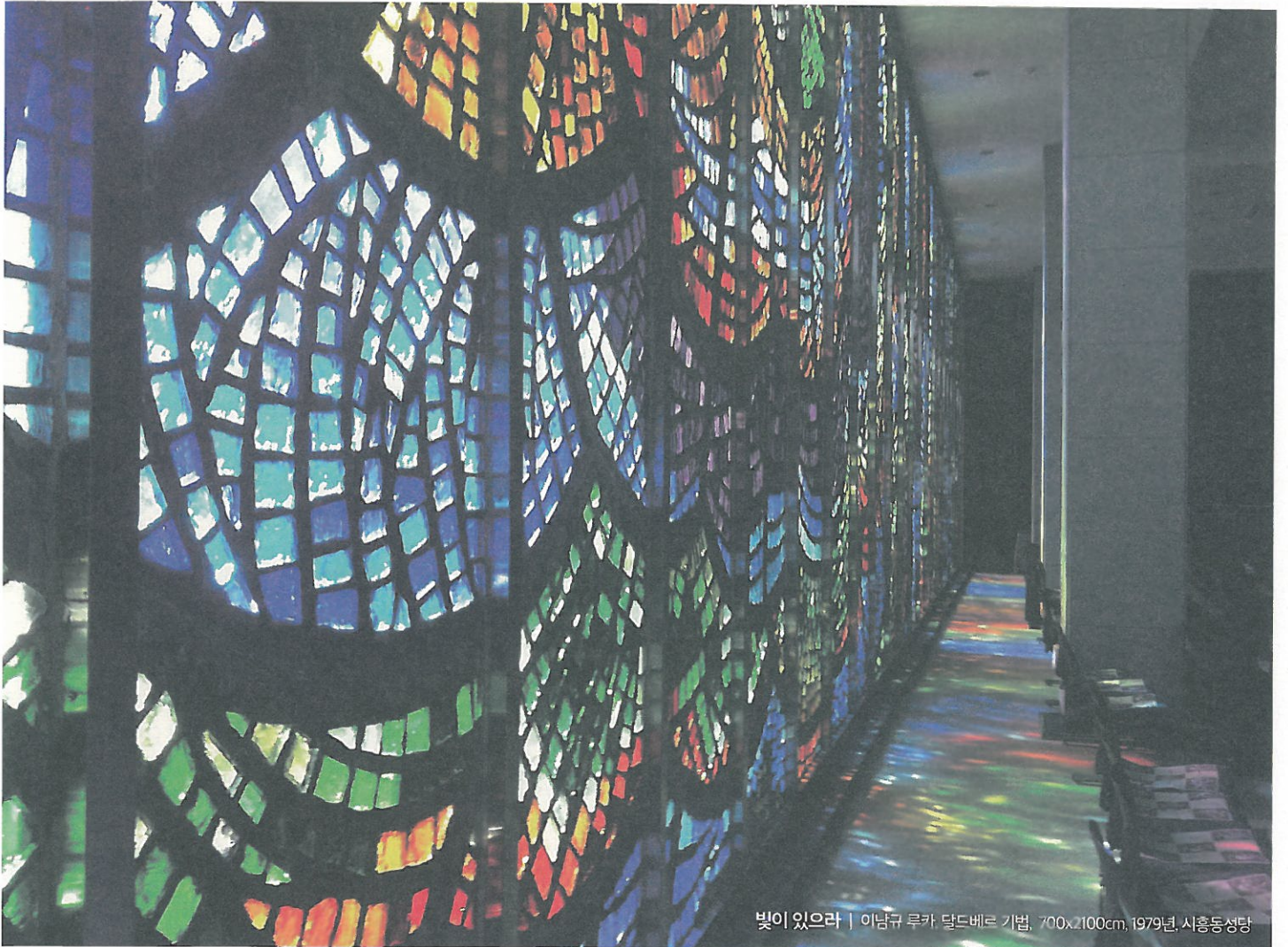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빛이 있으라 | 이남규 루카 탈드베르 기법, 700x2100cm, 1979년, 시흥동성당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 28)
성탄에 아기 예수님과 같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 영수정 안드레아 쿠키정

아기 예수님의 성탄, 우리의 성탄.
구원에 누워 계신 절손한 구세주,
우리 맘을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 정순택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쁜성탄과 복된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유경춘 타모테오올림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히 비추시고
바른길로 인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손희송

주님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구오이름

우리 안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 2,11)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특별히 전쟁으로 죽음
의 공포와 위협 속에 놓여 있는 나라의 국민들과 북녘의 동포
들을 포함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로
서 위엄 가득한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갓난아기는 인간 존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주변의 도움과 사랑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존속할
수도 없는 약하다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드님,
만왕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록 자기 가족
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기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



는 힘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가 우리를 향해 방긋 웃어주면, 보는 이는 누구라도 '무장이 해제되고' 각자의 마음 안에 원래부터 있던, - 그러나 많은 경우 바쁜 삶을 사는 중에 잃어버리고 지내왔던 - '선함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 안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여러 모습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안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도움과 사랑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라시며,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그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멋진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또는 가난이라는 십자가를, 혹은 다른 여러 형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 갑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선함을 일깨우면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뜻을 살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시노드 교회'란 다 함께 걷어가는 신앙의 여정, 곧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바탕으로 이웃들과 친교를 이루고,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살며, 거기에 우리가 모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면서, 특별히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안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봅시다.

성모님의 전구 속에, 우리 사회의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친교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한 주역으로서, 복음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한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정순택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입당송 | 시편 27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제1독서 |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답송 | 시편 96(95):1-2, 2, 3, 11-12, 13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이.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환호송 |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음 |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영성체송 |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입당송 |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 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제1독서 |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 시편 98(97):1, 2-3, 4, 5-6 (3번)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히브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음 | 요한 1,1-18 <또는 1,1-5,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성체송 |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요한 1,9)

빛은 신성의 존재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세 고딕 성당 건축과 예술에서 쉬제르 주교의 이론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빛이 자유롭게 흐르는 공간에서 성전의 내부는 밝고 고요한 곳으로 변모하여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참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정신적인 이치로, 어둠과 혼란 속에서 나의 길을 찾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